대불련 총동문회 50돌, 청년포교 박차

9일 청년포교 활성화 계획 공개

지역 대불련 지회 복원 지원
5개 전략지역서 토크콘서트
50주년 동문대회선 비전 발표



6월 10일 전법회관에서 열린 역대회장단 · 지도위원장단 초청간담회서 참석자들이 청년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창립 50돌을 맞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 이하 대불련총동문회)가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 먼저 대불련총동문회는 대학 불교학생회 복원 사업 및 지역 순회 청춘콘서트를 열고 대불련 동문들과 대학생 불자들 간의 소통의 고리를 넓힐 예정이다.

대불련총동문회는 6월 9일 50주년 기념 '진리의 벗 50년, 새로 여는 50년'을 주제로 한 청년 포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각 대학 불교학생회 복원 사업이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올해 강원지역 4개 대학 불교학생회를 복원한 바 있다. 1966년 창립된 대불련 강원지부는 강원대, 춘천교대, 춘천 성심대, 한림대 등 4개 대학으로 구성돼 있지만 강원대를 제외한 3개 대학에 불교학생회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불련 총동문회 동문들의 모교 지회 복원 노력이 이어졌으며 5월 11일 한림대 지회 재창립 법회를 시작으로 6월 3일 춘천성심대와 춘천교대 불교학생회까지 복원, 춘천지역 대학에 불교학생회를 복원했다.

이와 함께 대불련총동문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대불 산하 '대학전법지원단'(단장 최승태)은 올해부터 그동안 소멸된 대불련 지회 재건과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청춘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대불련 총동문회 울산지부(지부장 조문제) 주관으로 정목 스님 초청 '안목, 한차원 다르게 살기'를 주제로 5월 31일 울산대에서 열렸다.

대불련 총동문회 울산지부 동문들은 지회 복원 및 지부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및 대학에 플랜카드와 포스터를 부착하고 학내에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첫 토크콘서트에서는 정목 스님의 강연과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츠의 찬조공연이 함께 해 참석한 300여 대중의 호응을 이끌었다.

김관태 대불련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다만 대학생 참여가 많지 않아 동문과 지역불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참여한 학생 중 자발적으로 불교학생회 가입 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있는 등 작으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올해 경기, 경남, 강원 등 전국 5개 전략 포교 지역을 대상으로 청춘토크콘서트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불련 총동문회는 6월 10일 대불련 회장 및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역대 회장단과 지도위원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불련 초대회장인 신호철 씨를 비롯해 대불련 총동문회 초대회장 김윤권 씨, 초대 간사장인 이용부 전 문광부 종무관 등 35명의 역대 회장단이 참석했다. 대불련 총동문회 최초로 열린 이 자리에서 50주년 기념 동문대회 개최와 180억 규모의 동문회관 건립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대불련 총동문회 역대회장단들은 대불련 총동문회가 50년 역사를 바탕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미 확보한 불교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50돌을 맞아 매년 개최돼 온 동문대회를 8월 19~20일 1박 2일간 서울서 개최한다. 대회에서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비전 선포식과 통일기원법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자들이 촬영한 '간절한 염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법회관 갤러리에서 4월 5일 진행된 '2만 수보리의 합창' 행복바라미 대축전 관련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은 행복바라미 워크샵 및 연말 행사 등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청년불자들이 금강경 독송의 장면을 찍은 사진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佛心으로 기강 확립, 국민 행복 이끌자"

공불련, 제25차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 봉행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이하 공불련)는 6월 10~11일 양산 통도사에서 제25차 성지순례 및 제18차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김상규 공불련 회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과 송도근 공불련 고문(사천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지순례에서 김상규 회장은 "공직의 길이 수행과 해탈의 길이라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불심으로 무장해,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이 시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 안의 행복을 국민에게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순례에서 공불련 회원들은 철야참선을 비롯해 자비수참을 진행했다. 철야정진과 함께 새벽예불을 올리고 이튿날 금강경 독송과 108참회 수행정진도 함께 진행했다.

수계법회에서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바로 세우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사 스님에게 시대의 해답을 듣다

불교인재원, 7월 13일부터 불교경전 · 조사어록 3차 강좌

불교인재원이 불교경전과 조사어록을 배우는 강좌를 마련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7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조계종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3차 대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7월 3일부터 17일까지 3주간은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장아함경-디까니까야' 강의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은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능엄경' 강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8월 14일부터 28일까지는 3주간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금강경'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박인석 동국대 학술원 교수가 '보조국사 수심결'을 강의한다. 9월 25일에는 엄상호 이사장 외 불교인재원 임원진 전원이 참석하는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재가단체, 승단과 공조 하에 발전해야"

김종인 경희대 교수, 포교원 연찬회서 주장

"출가 승단에 대한 불신은 결국 재가 불자들이 스스로 사찰을 운영하고 창종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교단 체제서 일탈한 이러한 형태는 결국 출재가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종인 교수〈사진〉는 조계종 포교원이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개최한 포교연찬회서 '한국 재가자불교의 현황과 방향성' 발제를 통해 "한국 재가자 불교운동 단체의 출발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출가 승단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출가 승단이 제 역할을 하면 재가자 불교운동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렇기에 재가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가 승단과의 역할 분담,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가자들이 독립 단체를 만들어 출가승단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재가불자들이 해야 할 일을 출가자들이 대신하거나, 재가자들이 출가승단을 비판하는데 골몰하는 현재 상황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양자 모두 자기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재가불교 운동단체들이 이런 긍정적인 발전 방향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불교진흥단체, 수행단체, 사회참여단체로 출발한 많은 단체들이 애초 고유한 창립목적과 상관없이 교육시설을 만들고 법당을 지어 일반사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사찰을 운영하면서 승단에 독립해 있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승단에 사찰운영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가불교 종단은 불교 가치 실현에 근본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교단체제에서 일탈한 형태로 정당성과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승단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출가 승단 인식 전환을 통해 상호 협력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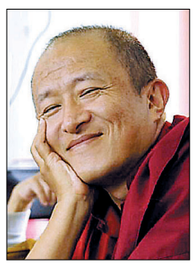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는 산토쉬 굽타 서울대 규장각 박사 후 연구자의 '인도 재가불교의 현황과 전망', 곽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의 '중국 재가불교의 역사와 현황', 사토 아츠시 일본 전수대 특임교수의 '일본 재가불교의 현황과 미래', 왕즈칭 대만 정치대대학원생의 '대만 재가불교의 활동과 미래'가 발표됐다.

이들은 인도, 중국, 대만, 일본 등 각 나라의 재가불교 운동을 이끈 암베드카르 박사, 조박초 거사, 가토 벤자부로 등을 소개하며 재가자들이 근현대 불교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천수경〉 관세음보살의 자비사상 논하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 7월 15~16일 방한법회



부탄 출신 스님이자 영화감독으로 유명한 종사르 켄체 린포체〈사진〉가 7월 15~16일 한국을 다시 방한해 법문한다. 국제신행단체 싯다르타즈 인텐트 인터네셔널의 한국지부인 싯다르타즈 인텐트 코리아는 7월 15~16일 오전 10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종사르 켄체 린포체 초청 법회를 진행한다. 이번 법회는 〈천수경〉의 원전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주제로 진행된다.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난 린포체는 7세에 티베트 스승 잠양 켄체 왕포의 환생자로 판명된 이후 리메학파 법맥을 이었다. 영국 유학시절 영화 '리틀 부다' 고문을 맡기도 했으며 부탄 최초 장편영화인 '더 컵'을 비롯해 '나그네와 마술사' '바라, 축복' 등을 제작했다.

노덕현 기자

